



임용고사 합격을 위한



최종 합격

♡ 유임정 10기 - 합.격.수.기. ♡

수강생명	이○○ 수강생		수강방식	초수: 인강(연팩) 재수: 인강(연팩) + 하반기 직강 참여 삼수: 인강(논술 제외 연팩)
응시지역	경기		병행 여부	올인
공부경력	3수 초수(재학생), 재수, 삼수 올인		등수	경기 14등
점수	1차	교육과정: 63 논술: 16 (총점 79/ 컷+6)	2차	수업실연: 60 (만점) 교직면접: 39.2 (0.8 감점)

좌우명	<p>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하고 살자!!!, 행복하게 살자!!! 공부하는 이○○은 인지적으로 이○○을 앞선다!! 나는 교사가 될 사람이다! 공부하는 나는 멋있다!!!</p>
-----	--

1. 1차 공부 방법

1) 전반적인 공부 스타일 및 강의 수강 방법(개각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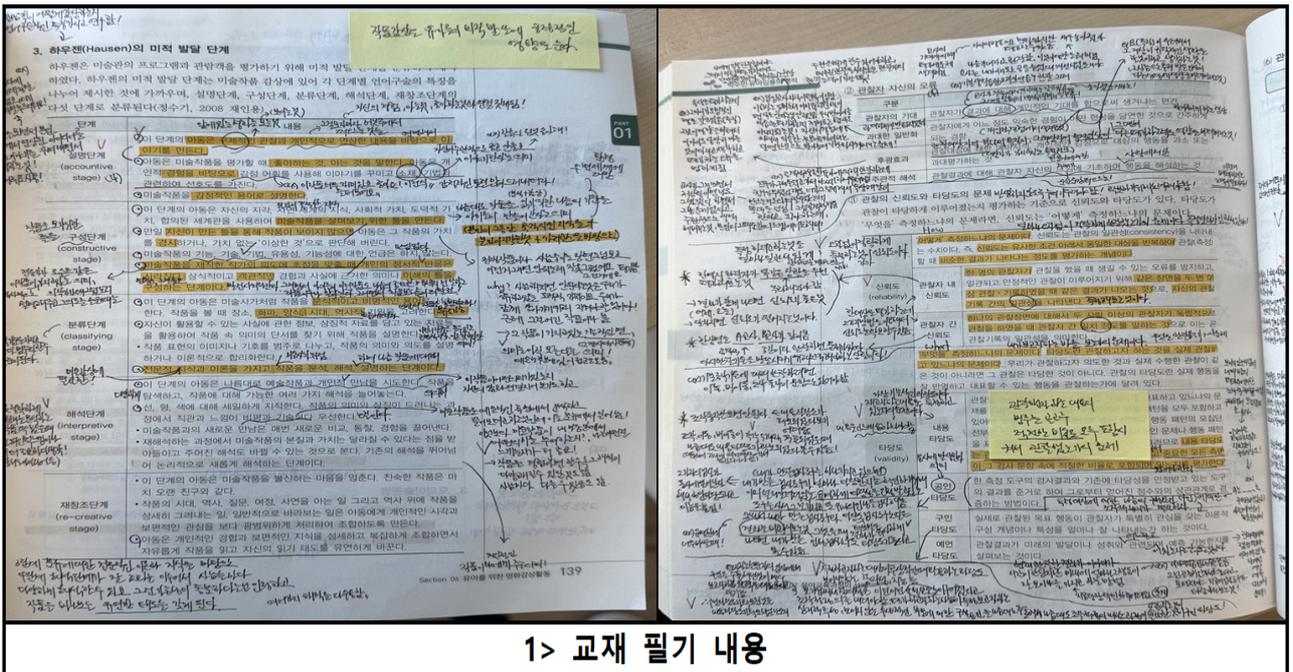
저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무조건 개념, 기본,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 ① '나만의 페이스대로 철저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완주한다.'
- ② '처음 마주한 순간 최대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
- ③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설명, 언급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기록하고 내면화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30분인 것을 저는 2시간에서 길면 2시간 30분 정도로 모든 내용을 다 필기하며 매일 들었습니다. 1번에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은 개론 1주차 성격과 2주차 사상을 들으며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수강할 경우 한주에 올라오는 강의를 다 못 듣고, 강의를 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도 늘어지지 않고,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이해하고 제 것으로 만들며 나만의 페이스대로 해낼 수 있다는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 처음 강의를 들을 때 공을 엄청나게 들여 수강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강의이다. 다시 이 해하러 안 돌아온다. 꼼꼼하게 하자.'생각했습니다.
 - 강의를 들으며 목차를 만들었고,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집에 가서 칠판 앞에서 '내가 박수민 교수님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출했습니다. 이 복습이 크게 보면 1차 복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재를 보면서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갓 정보가 들어왔고 모든 설명을 다 받아 적으면서 수강하였기 때문에, 칠판 앞에 서서 공부(인출) 할 때 머릿속에서 교재가 시각적으로 보이고, 제 입에서 방금 교수님께서 수업하신 내용이 줄줄 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재밌습니다.
 - 이렇게 복습했으면 바로 자야 합니다.
 -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전날 칠판 복습했던 내용을 회상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바로 잠기 때문에 어제 했던 내용을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씻고, 스터디 카페로 이동해서, 공부할 준비를 하고, 바로 어제 강의 들은 내용(=전날 밤에 공부한 내용=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중얼거린 내용)에 대한 백지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 벌써 강의 수강한 것 포함 3번을 한 것이기에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목차부터 굵직 굵직한 내용은 모두 인출 가능하고, 교재와 비교하며 보완 암기했습니다. 이 과정이 1세트였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독하고 약착같이 암기하고 반복 인출하다 보면 문제풀이 반부터는 정말 반복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합격 점수에 들어간다!는 목표로 1~6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교재 필기 내용

		친사회성	6월							
		06월 05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7:00~08:00	기상 및 이동			1	2	3	4	5	6	7
08:00~09:00	전날 복습	전날복습	D+3	28	29	30	31	6.1	2	3
09:00~10:00		D+14	21	22	23	24	25	26	27	
10:00~11:00	강의 수강	D+14 전날 이월 코다이, 달크로즈	D+28		8	9	10	11	12	13
11:00~12:00		오르프	D+3	4	5	6	7	8	9	10
12:00~13:00	점심	고든	D+7	28	29	30	31	6.1	2	3
13:00~14:00		해설서	D+14	14	15	16	17	18	19	20
14:00~15:00	강의 수강	점심	D+28		15	16	17	18	19	20
15:00~16:00		오전 마무리	D+3	11	12	13	14	15	16	17
16:00~17:00	정리/ 계획	노래/악기	D+7	4	5	6	7	8	9	10
17:00~18:00	이동 및 저녁	신체/음악	D+14	21	22	23	24	25	26	27
18:00~19:00		칠판복습		D+28		22	23	24	25	26
19:00~20:00			D+3	18	19	20	21	22	23	24
20:00~21:00	자유시간		D+7	11	12	13	14	15	16	17
21:00~			D+14	28	29	30	31	6.1	2	3
			D+28		29	30				
			D+3	25	26					
			D+7	18	19					
			D+14	4	5					
			D+28			5,8				

2> 일일 계획

3> 누적 복습 계획 표

2) 누적복습

강의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듣고(제 스타일이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이해하고 초기에 다져두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안 떠나고 꼭 붙잡고 있기 위해 D+1, 3, 5, 7, 14, 28일로 간격을 두고 인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친사회성을 4월 1일에 강의 수강 했으면, D+1은 4월 2일에, D+3은 그날을 기준으로 3일 후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는 공식적인 일정이었고, 이 외에도 수시로 꺼냈습니다.

초기 공부나 내가 너무 인출을 안 했다고 느껴지는 내용(틈이 유독 길게 느껴지는 것)이나 낯선 개념이 있으면 전날 밤 인출 시간 계획을 세워놓고 머리 감으며, 이동하면서, 밥 먹으며, 자기 전에 수시로 꺼내서 목차와 내용에 대한 인출을 했습니다.

3) 논술 공부

논술은 정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안내해 주시는 내용대로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재학생 신분으로 교수님 논술 기초반 강의 2강 듣고 시험장에 들어갔었는데 17점 받았었습니다. (강의에 논술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한 졸업 이후에는 다시 기초반 강의, 실전반 강의를 모두 수강했습니다. 보물 찾기처럼 문제에서 힌트를 주면 제시문의 그 해당 부분을 추출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의 문장 틀을 그대로 따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제의 진술방식이 이러니 내 답안에는 ~, ~, ~이 들어가야 하고, ~순서로 작성해야 하구나.'생각했습니다.

초수 선생님이시나 논술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진짜 교수님 강의 듣고, 안내해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루에 논점 1개씩만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될까?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꾸준히 모이면 11월에는 순식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논술 답안 틀을 잘 체화하시면 2차 면접에서 답변하는데 매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말로 하는 논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4) 해설서 공부

저는 해설서 공부가 임용고시의 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이고, 해설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마스터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처음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나눠서 '나는 오늘 성격만, 나는 오늘 구성의 중점만! 나는 오늘 신체운동 건강 영역 중 신체활동 즐기지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다 보면 1달이 지나면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2시간 걸려도 처음 공부를 탄탄하고 견고하게 해 두면 두번째는 1시간 40분, 세번째에는 1시간 점점 줄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해자료와 실행자료에 있는 내용도 모두 암기했습니다.

5) 건강 · 안전 공부

사실 제 주위에서도 '건강안전은 시험에 나와봤자 다 틀려, 몇 문제 만나오는데 공부는 산더미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현장에 교사가 되어 당장 3월에 나가야 하고, 안전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교사가 되기는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었기에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양이 많으면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쪼개서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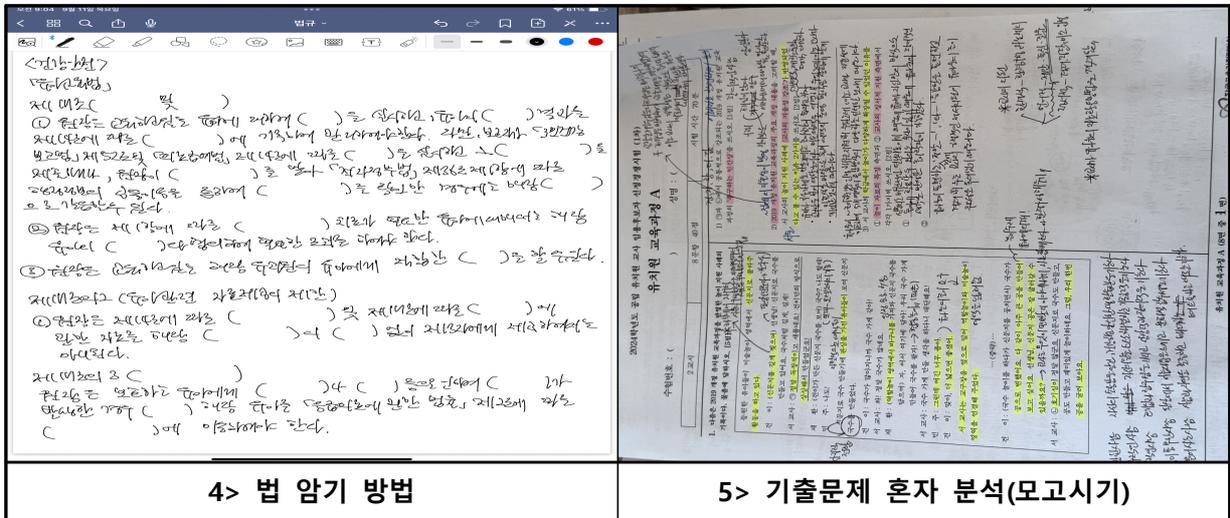
쌀 한 포대를 다 먹어야 한다는 미션이 주어지면, 당연히 한 번에 먹을 수도 없고, 질릴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나눠서 먹는다면 금방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안전은 공부할 거리가 산더미지만, 목차 추출해서 하루에 1개를 목표로 잡는다면 시험 직전에는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안전 파트 내용은 2차 면접 문제로도 단골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공부 상대적으로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 내가 학급에서 만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6) 법 공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법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먼저 빈칸 뚫어 암기할 내용들을 선별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최근 법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언제 한번 나오면 거기서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도 철저하게 암기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저는 법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특수교육법 등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며 제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7) 기출 문제 공부

기출은 정말 정말 제가 공부하는 내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소중한 문제들입니다. 이론 강의를 수강(해당 분야- 사상이면 사상, 수학이면 수학, 미술이면 미술) 하고, 하루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아예 하지 않고(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확인학습을 풀어 그 분야에 대한 공부 정도를 확인하고, 또 하루 동안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기출을 풀었습니다.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주차대로 따라가지 않고, 제 속도에 맞게 수강했기 때문에 이처럼 기출문제를 접했습니다.

<다만, 저는 제 속도에 따라 공부를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았고, 결국 문제풀이 반 정도 가면 나도 이론에 대해 완성할 수 있어!라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늘어지게 공부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공부에 있어서 나를 통제하기 어려우시다면, 속도감 있게 교수님 강의 일정에 맞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전처럼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문제지에다 풀지 않고, 다른 종이에 답안지에 작성하는 것처럼 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채점을 하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역시 강의를 수강할 때는 모든 내용을 필기하며 적었습니다. 역시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공부할 때 강의를 찾아보는 것이 아닌, 제 필기를 보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그날 칠판 복습으로 철저히 보완 암기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문제가 이런 식이니, 우리는 답을 이런 식으로 진술해야 한다. 조건에 맞는 답을 써야 한다. 문제는 끊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내면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밑줄, 동그라미, 슬래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의 초점과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조건 기출문제 풀 때부터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반과 모의고사 반에서는 자신의 효율적인 문제 풀이 방법을 점검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는 절대 비추천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강한 기출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무엇을 묻는구나, 내가 공부한 것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작성해야 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8) 목차 공부법

강의를 수강하고 목차를 추출하면, 그 목차를 우선적으로 암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으로 이동해 바로 복습할 때도, 먼저 목차를 칠판에 적으며 외우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차를 암기하면 우리의 머리는 컴퓨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래프'라는 단어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유임정 하권의 수학 파트에서 자료수집과 해석하기 내용의 두번째 내용이었던 그래프, 그 그래프 안에는 ~~' 이런 식으로 짝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 강력 추천합니다.

9) 칠판 공부법

사실 저는 중고등학생일 때부터 집에 엄청 큰 칠판이 있었습니다. 교사라는 꿈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집에서 선생님 흉내 내며 공부했었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제 방이 교실로 변했다고 생각하며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듯 암기과목을 외웠었습니다. 이 방법이 제게 너무나도 효과적이었기에 임용 공부도 똑같이 했습니다. 1년 내내 이 칠판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칠판 앞에서 인강 속에서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는 모습을 따라 하고,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모두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풀, 모고 반에서 정말 안 외워지는 것은 칠판에 딱하니 적어두고 그거 되뇌이면서 잠들었습니다.

10) 백지 공부법

저는 처음부터 목차조차 없는 정말 **순백의 A4용지를 묶음으로 타공해서 백지 복습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했는데, 이미 인출은 2번 했고, 시간 간격을 갖게 두고 반복했기 때문에 술술 적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고 촘촘하진 않았지만, 그 디테일은 시험 들어가기 일주일 전까지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반복해가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보고 따라 쓰거나, 뽁뽁하게 감지쓰듯이 하는 것이 아닌, 내 이해와 공부 정도를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11) 6월 모의고사!!

1~6월까지의 제 목표는 악착같이 복습하고 암기하고 이해해서, 6월 모의고사에서 전년도 합격 점수 근방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안의 디테일의 부족, 진술 방식의 모호함으로 인해 턱없이 부족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모의고사 형식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 하반기 과정을 악착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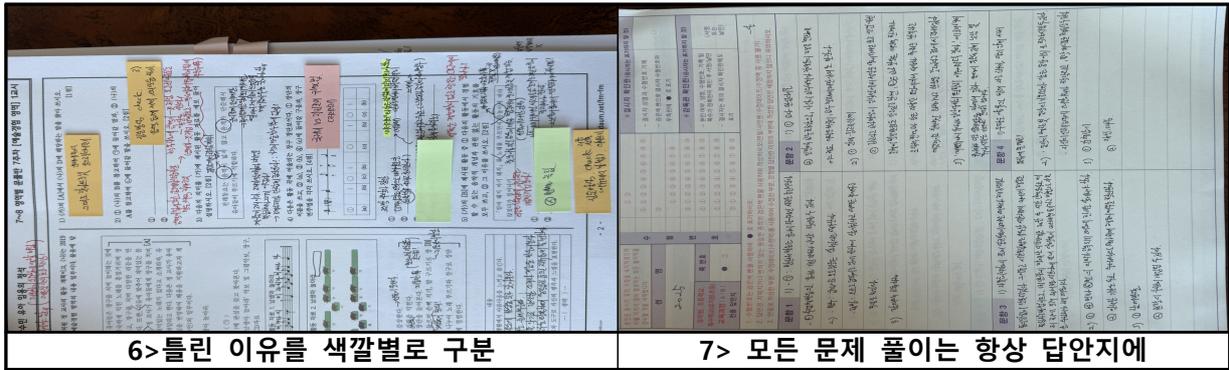
혹시 문제풀이 반이나 모의고사 반에서 직강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때 직강으로 신청해서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이긴 하지만, 교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기회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12) 7~8월 문제풀이반!!

대망의 문제풀이 반입니다. 저는 재수 때(인강)는 하루에 다 몰아서 풀고, 그날 해설강의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방법이 겉보기식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한 해에는 제가 이론 공부했던 것처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풀고 그 문제는 확 잡아가자'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한 주에 올라오는 문제들 중 대문항 4개씩 시간 맞춰서(대문항 1개 당 7분) 풀고, 최선의 답이었는지 고민하고, 채점하고, 키워드 채울 것 채우고, 오개념 발견하고, 해설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해설강의 역시 제가 이론 공부했던 것처럼 싹 적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내가 영역별로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안함을 갖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화요일까지 문제를 다 풀고, 추가 자료는 수요일에 수강하고 바로 암기했습니다.

저는 1~6월에 악착같이 이해하고 암기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한 해에는 한 주 동안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풀이를 먼저 하고 그 해당 주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출 및 점검했습니다!(순서를 바꿔서 한 것입니다.)

- ※ 헛갈리는 개념들은 모두 카페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카페 조교선생님들 정말 친절하셔서 상세하게 안내해줍니다!
- ※ 이 시기에 마음이 풀어지거나 늘어진다면 교수님께서 1월에 알려주시는 카페 영상을 찾아봤었습니다.



12) 9~10월 모의고사반!!

모의고사 시기는 최고로 중요합니다. 한 주 한 주 철저한 계획하에 반복 복습 일정을 계획하고, 한 영역을 봐도 또 보고,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다시 공부할 기회를 얻었을 때 모의고사 기간에는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틀렸어,'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로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 최종 합격한 해에는 '와 나 이거 틀렸어? 오케이!!!! 너 내가 외우고 시험장 들어간다!!! 이리 와!! 파헤쳐주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의고사는 직강도 수강해 보고, 인강도 수강해 보았는데 제게는 인강이 더 잘 맞았습니다. 직강의 장점은 교수님께 질문을 직접 할 수 있고, 교수님을 뵈는 것만으로도 제게 동기 부여가 되었었지만, 모든 내용을 한번 들으면 다시 들을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놓치면 불안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인강으로 수강할 때는, 지역도서관에 방문하여 실제 시험시간과 똑같이 풀었습니다. 지역도서관은 놀이하는 학생들, 코를 고시며 주무시는 어른들까지 다양했기에 여러 소음에서 실전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며 키워드 부족, 암기 부족, 오개념, 진술 방식 부적절 등과 같은 이유를 파악했습니다.(이 과정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메타인지 발휘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 ※ 강의를 수강하며 이해하고, 처음에 꼼꼼하게 암기하고, 그 뒤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말하고, 쓰고 모두 하며 인출해야 정말 시험장에서 힘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비군에 가서도 쉬는 시간에 작은 볼펜과 노트에 백지 쓰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과 자투리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저는 중고등학생일 때 국어 과목을 어려워했어서, 이번에도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께서 의사소통 들어가기 전에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었고, 가장 어려울수록 사랑해~라고 말하며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국어 과목이 임용에서도 제 약점이 되지 않도록 사랑해~ 하며 파헤쳤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대로 공부하면 효자 과목으로 바뀝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어려운 학자, 발달단계가 나온다면 우선 친숙해지기 위해 사랑해~하며 다가가서 하나씩 차근차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두문자 암기**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두문자는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에서 들으면 혼자 공부할 때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두문자는 모두 자연스럽게 외워졌었습니다. 제가 두문자로 만들어서 암기한 것은 명칭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들만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에서 유아기 아이들이 보이는 발음 오류 현상을 배우는데 이것을 '반대유~ 첨경축!'이라고 외웠습니다. '반복현상> 반복하는구나, 대치> 바꿨구나, 유사> 유사하구나, 첨가> 넣었구나'처럼요!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빠르게 외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두문자로 외워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진짜 안 외워지는 것!!!!**

교수님께서 암기할 때 자신의 나이만큼 반복해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안 외워던 과학 교과에서 좋은 물리적 지식활동 계획하기 단계의 선정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사물에 행위를 가하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가?'인데, 이 문장이 절대 안 외워지는 겁니다. 제 나이만큼 반복했고, 자기 전에 외우고, 아침에 기억하고, 하면 점심에 까먹고 이랬는데 '너 내가 외운다.' 마음먹고 두문자를 뒀습니다. '사행가어반'이렇게 외웠더니 통으로 외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통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그 조건을 정확히 적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키워드 암기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문제풀이의 핵심은 조건 파악**

제가 재수시절 인천에서 다시 공부할 기회를 얻은 원인을 분석할 때, 저는 문제의 조건을 무시하고 제가 아는 이론을 짹짹 담아 적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의 특성, 점토의 특징과 같은 문제에서요. 이때는 불안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시험에서 합격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뭐라도 적으면 점수 주시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시험은 문제의 조건을 철저히 파악해서 문제의 최적화된 답을 적어내야 합니다.

저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답안을 길게 작성하기 위해 굳이 안 써도 괜찮은 문제의 일부를 작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종 합격한 해에는 딱 핵심만 적기 위해 모든 문제를 풀 때 필

요 없는 말을 걷어내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할 때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답일까? 저게 답일까? 생각도 물론 해야 하지만, 많은 이론을 공부한 나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답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공부장소

저는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제가 늘어지고, 뭔가 부정적인 기운을 얻을 것 같아서 햇빛이 있는 곳에서 공부하기 위해 장소를 엄청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공유오피스와 비슷하게 생긴 스터디룸을 발견하였고, 그곳에서 최종 합격한 해에는 계속 공부했습니다.

2. 2차 준비 방법

1) 스터디!!

저는 대학 동기 1명과 저 포함 2명에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2개 스터디 모두 같은 친구와 진행했습니다.

① 수업, 면접 1세트 스터디(1차 발표 후, 5회 진행)

각자 문제를 준비하고 교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수업설계도 봐주었지만, 습관이나 발문을 다듬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입을 가만히 있어라, 이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너희 반에 만약 A(조건)과 같은 아이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지도할 것 같아? 생각 등)

② 즉답형 스터디(1차 발표 후, 시험 전날까지 진행)

7시 30분에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즉답형 1번 문제입니다. 생태 전환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현장의 교사가 되어 학급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3가지를 말하시오.'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즉답형 1번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 전환교육의 필요성은 ~~~' 이런 식으로 답하는 스터디였습니다.

하루에 3문제씩 주고받았고, 교직원이나 경기도 시책 문제 위주로 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피드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이 부족한 문제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전화 스터디 전체를 20분에서 25분 정도 짧게 진행했습니다. 어느 지역의 선생님이시든 각자의 전형에 맞게 이 전화 스터디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즉답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면 혹독한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전반적인 2차 공부방법

제가 따로 다른 사람(모르는 사람)과 스터디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모두가 합격하자는 분위기의 스터디더라도 1차 점수가 모두 다르니 제가 불안을 느낄 것 같았고, 저를 견제하는 선생님과 함께한다면 필요 없는 기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수님과 스터디한다는 생각으로 교수님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무조건 제가 먼저 문제를 풀고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유아교육 4년 전 공하고, 임용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니 나름대로의 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빈약하고, '이게 맞는 걸까?'하는 생각은 계속 들었지만, 내가 생각해 보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답변을 해본 다음 수업을 들으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며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수업실연은 먼저 수업 유형의 흐름을 다 받아 적으며 들은 후, 이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발문은 모두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뒤, 다음날 수업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강의를 듣고, 스크립트를 읽었습니다.

2차 역시 눈으로 보거나 마음속으로 읽으면 안 되고, 머리로 생각하며 '나라면 어떤 식으로 했을까?' 생각하고, 입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3) 면접 39.2점(0.8점 감점)

면접의 핵심은 자신감과 시선, 표정,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교사로서 엄청 고민 많이 하고, 현장을 그려왔습니다. 저 준비되었습니다. 3월에 우리 반 아이들을 만나 행복한 교실을 함께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유능한 교사가 되겠습니다.'를 보여드리고 나와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실에 입실하는 순간부터 퇴장하는 순간까지 기회입니다. 저는 평가실에 들어가기 위해 노크를 하기 전 크게 호흡을 2번 하고 똑똑 하고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습니다. 대기석에서 앉아있을 때도 허리 똑바로 펴고, 이동해서 답변석에 앉아 있을 때도, 저의 교사다움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면접을 공부하기 위해 테마(디지털, 생태전환, 유초이음 등)별로 교육활동, 학급운영방안 등 여러 쪽지별로 답변을 준비하긴 하지만, 저는 평가실에서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관님들께 '준비한 외운 답을 암송하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구나?'가 전달될 수 있었기에 소수점으로 감점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① 시책공부

저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 유튜브에 올라오는 토론회, 블로그와 놀이ON사이트 게시글, 교육감님 SNS 등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읽고 필요한 것들은 챙겼습니다. 봐야 할 자료가 수십개이고, 그중 몇 개는 200페이지도 넘어갑니다. 이때는 제가 판사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봤습니다. 사례 같은 것은 훑어보는 식으로 보았고, 이론이 있는 것은 철저하게 정리하며 읽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보는데 비효율적일 것 같고, 막막하시더라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이유는 저는 제가 봐야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② 주제별 정리하기

기출을 보셔야 합니다. 기출문제에서 ~교육방안, ~필요성, ~학급운영 방안, ~교육활동 등 다양하게 묻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 교육이 왜 필요하지?',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부모와의 협력 방안은 뭐가 있을까?'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자료와 스터디를 하면 됩니다. 저는 디지털과 관련된 교수님 자료, 교육청 장학자료, 경기도교육청 유튜브에 현장 선생님들께서 토의하시는 영상들을 보며 아이디어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2차 기출로 나온 교사들의 고민 해결과 4,7세 고시 등에 대해 현장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접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말했었습니다!)

③ 모든 문제 풀기

교수님 교재에 있는 경기 기출뿐만이 아닌, 서울, 인천, 평가원 문제 모두 풀었습니다! 지역마다 전형은 다르지만, 모두 교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혹시 4학년 재학생 선생님들 계시다면!**

남은 1년 동안이라도 발표의 기회를 많이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과 학생회장도 하고, 모든 발표의 발표자, 모든 모의수업에서 교사역할을 자원해서 했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었고, 그것이 이번 평가실에서도 평가위원분들 눈을 딱 쳐다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고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 수업실연 및 수업설계역량 (60점 만점)

저는 정말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업이야말로 교사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계획-실행-평가까지) 그래서 학부시절 교사의 역할을 제가 다 하겠다고 자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① 저는 이번 수업실연에서 감사하게도 6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교실에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했습니다. 교육실습 갔던 교실에서 내가 만난 아이들이

내 눈앞에 있고, 함께 수업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말을 하면 눈 맞추며 귀 기울여 듣고, 내가 말할 때는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 시선이 가도록 분배하고, 아이가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고 들어갈 땐 격려란 격려를 제공했습니다. 교육실습 당시 원장선생님께서 제 수업을 참관해 주시고 제게 주셨던 피드백 중 하나가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수업을 하시는 것이 너무 좋았다.'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장에 나가 아이들 이랑 생활할 땐, 아이들에게 미소를 보이고, 사랑스러운 아가들이랑 밝은 표정으로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수업실연 역시 우리 반 아이들과 호흡하며 함께 수업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교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있고, 현장에 나가 어떤 식으로 생활할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② 문제를 풀 때는 2차 강의에서 배운 수업틀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구상실에서 구상하는 문제의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유형별 틀이 있지만, 조건에 따라 과감하게 변형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형을 하기 위해선 수업틀이 탄탄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이번 시험에서 난생처음 해보는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수험생이 외워서 읊고 있구나가 아닌, 방금 만들어서 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이 전달되어 만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③ 수업설계역량

수업설계역량 문제를 간단히 읽으며 아 이런 내용이구나 확인하고 바로 수업을 구상하러 갔습니다. 수업을 다 구상하고 역량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경기유아역량, 깊이있는 학습, 학습으로서의 평가(경기시책내용)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시책이 아닌 문제가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였지만, 오히려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평소 수업을 설계할 때 협력을 중요시 여겼었는데, 문제에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속에서 아이들이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찾고, 그것에 대해 3가지 답변했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제가 하는 설계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 있을 수업실연에 무조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 ~하는 부분에서 들어납니다. 아이들이 ~을 하는 과정에서 ~을 ~~' 이런 식으로 제 수업에 있는 것을 데려와야 합니다.

답변은 1일차 면접과 마찬가지로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자신감을 갖고, 골고루 시선 분배하며 답변드렸습니다.

5) 2차 준비 팁

- ※ 2차 개별지도를 교수님께 받았었는데, 저의 2차 준비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면접이나 수업실연, 수업설계역량 모두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현장의 교사였고, 엄청난 노하우와 안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 사례운영반도 적극 추천입니다. 재수 때는 사례운영반에 참여하여 교수님 앞에서 수업을 해보았었는데, 정말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교사가 될 사람들이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직업입니다. 이왕이면 엄청난 전문가이신 교수님께 수업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 ※ 2차는 자신감과 뻔뻔함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스터디했던 동기가 제게 너 정말 뻔뻔하게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무기인 것 같습니다.

3. 전반적인 수면 및 건강 관리 방법

1) 건강관리방법(운동)

저는 수험생활을 지내면서 살이 17키로 가까이 쪼뻛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헬스도 하고 새벽수영도 하면서 건강하게 지냈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며 모두 그만두고 올인했고, 그러다 보니 먹는 것은 똑같았지만 운동량이 줄어 살이 쪼뻛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시험 준비에만 집중하고 합격하고서 살은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스터디카페로 이동하는 시간이 편도로 30분 정도 걸렸는데 너무 더운 여름이나, 장마철을 제외하곤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느낌은 있지만, 이 시간에도 전날 밤 계획해 두었던 인출내용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중얼중얼 거리며 이동했습니다.) 공부하다가 뒷목이 너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경우에는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공부할 목차 들고 중얼거리며 산책도 하고, 2단 독서대도 사용했습니다.

2) 수면

저는 깨어있을 때 온전히 임용을 생활화하여 즐지 않고, 무조건 딱 집중해서 맑은 정신으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잠을 줄이지 않고 1년 내내 규칙적으로 푹 잤습니다. 23시에는 무조건 다 끄고 잠들어서 7시에 일어났습니다.(8시간 수면으로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이 수면시간을 지켰습니다.) 잠을 줄이지 않고, 충분히 잤기에 공부하는 내내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면시간은 1차 시험 일정에 맞게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차시험

입실 시간을 확인하시고(이동시간 고려) '내가 시험 당일에도 이쯤 일어나겠다.' 생각하신 후 기
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잠을 꼭 자기 위해서 정말 좋아하는 커피도 절대 마시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커피를
밤늦게 마셔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었지만, 아주 작게라도 카페인이 제 수면을 방해할 것 같아
공부하는 기간 내내 커피도 끊어가며 수면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처음
에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3) 휴식

저는 17시에 집으로 이동해서 18시 30분까지 저녁 겸 이동시간으로 잡았었습니다. 이 시간에
짧은 휴식을 취하였고, 이후에는 2시간 정도 칠판복습을 진행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한 뒤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약 1~2시간 정도) 이 시간에는 잠시 임용에서 벗어나서 유튜브로 교사
브이로그를 봤습니다. 현직 선생님들께서 임용고시 준비하는 과정과 합격의 순간, 교사로서 현
장에서의 모습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부럽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나도 현장의 교사가 될 수 있
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정을 진행하고, 일요일은 오전만 공부하고 오
후 2시~3시 이후부터는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공부를 마무리하고 집에 갈
때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제게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 수험기간 내내 하지 않은 것

핸드폰 알림을 모두 끄고 공부하는 동안 살았으며, 친구도 한 명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밥도 혼자 먹고, 아무 영상도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오전에 했던 공부를 계속 생각하면서 먹
었습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노래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노래 가사나 멜로디가 계속
생각나고, 머릿속에서 멤돌면 집중에 방해된다는 느낌을 받아 아예 안 들었습니다.

4. 스트레스 극복 방법

저는 무덤덤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이 들며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응시할지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면 그 정서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시험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면 '아 내가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라는 생
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여기에 집중하게 되어 불안할 틈이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처음에는 어디든 붙여만 준다면 갈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진
정 원하는 지역(서울, 경기)의 커트라인으로 인해 차선을 선택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었고, 소신껏 지원해 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어 최종합격한 해에는 제가 살고 싶은 본가가 있는 경기 지역으로 응시하여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똑심 있게 제가 3수에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지역 정하고, 접수 첫날 접수하고 공부에 다시 몰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수 시절 스트레스받지않고 독립적인 정서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인 일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제시간에 정해놓은 공부를 하고, 각 시기별로 해야 할 공부를 충실히 한다면 스트레스받을 일도 없고, 합격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예비교사로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5. 소감 (공부하며 느낀 점)

우선 교수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정말 교수님을 믿고 커리큘럼에 맞춰 달려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매년 교수님과 함께 공부를 하였고,
교수님께서 알려주는 것만 잘 소화한다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정말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작년에 1차에서부터 다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고서,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거나 채찍질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보살피면서 1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수 때 너무 제 자신에게 엄격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은 만점 안 받아도 괜찮고,
1년 동안 철저한 계획 속에서 똑심, 끈기, 절제를 기반으로
교직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사유를 진행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들 정말 응원합니다.
1년 선배로 먼저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겠습니다.
내년에 교육청에서 만나요!

교수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과 함께 해서 교사로서 성장하고
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